

‘죽음의 통로’ 되어버린 SN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광양 펜션서 생면부지 5명 동반 자살 기도...4명 사망 연고 없어도 SNS로 정보 공유...방지 법안 마련 시급

광양의 한 펜션에서 SNS를 통해 만난 20~30대 남녀 5명이 동반자살을 기도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자살 관련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되는 SNS나 SNS를 기반으로 한 채팅앱을 이용해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관련법 정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광양시 한 펜션 객실에서 남녀 5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유모(22·경기), 이모(33·서울), 정모(여·37·대구), 정모(26·통영)씨는 숨진 상태였으며 김모(34·전남)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숨진 이들 중에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요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타다 남은 연탄이 담긴 작은 화덕과 수면유도제, “먼저 가서 미안하다”라는 내용 등이 담긴 A4 용지 4장 분량의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유씨 등 5명이 서로 거주지역과 연령, 직업이 다르고 광양과 연고가 없다는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동반자살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 등이 스마트폰 트위터에서 ‘#OO’, ‘#동반OO’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통해 지난달 30일 만나 펜션에 투숙하고 3일 새벽 1시께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반자살로 결론날 경우 생존한 김씨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SNS를 이용해 만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9일 인천에서 SNS로 만난 10~30대 남녀 3명이 동반자살을 시도해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5일 안산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난 20~30대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3월 광주에서도 SNS에

서 만난 남성 3명이 동반자살을 시도해 2명이 숨졌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동반자살 사건들의 경우 거주지가 다르고, 숨진 장소와 연고가 없고, 방법이 같다는 점에서 모두 SNS에서 만나거나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경찰청이 지난 7월 자살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한 결과 SNS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7.87%로, 지난해 모니터링 기간(13.32%)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SNS에는 동반자살 관련 글이 넘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트위터에서 ‘#동반OO’를 검색하자 ‘오늘 실행하십시오’, ‘수면제 있어요’ 등의 글이 여과 없이 검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털사이트가 관련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최소한의 예방 장치로 자살예방사이트가 나오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는 “웹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 등의 자살 유해 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그 중에서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SNS는 자체 검열 장치도 없는 상황”이라며 “OECD 자살률 1위인 한국 사회에서 SNS나 인터넷에서 자살 정보를 줄이기 위한 관련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김경인기자 kki@

함평경찰 차분한 대응 1명 구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의 재빠른 대처가 소중한 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3일 함평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함평군에 거주하는 A씨는 “더는 살고 싶지 않다. 극약을 준비했고 읍내 모텔에서 죽어버리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연락했다. A씨가 2차례 자살기도 전력이 있음을 확인한 최승현 경위 등 읍내파출소 직원들은 A씨가 흥분하면 극약을 마실 가능성을 우려해 잠긴 문을 흔드는 대신 사연을 들어주다가 A씨가 문을 잠깐 열어보려는 순간 재빨리 진입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0 해질 18:12 | 맑음 09:06 | 맑음 20:14

대풍 대비하세요
대풍의 영향으로 남해상에서 파도가 높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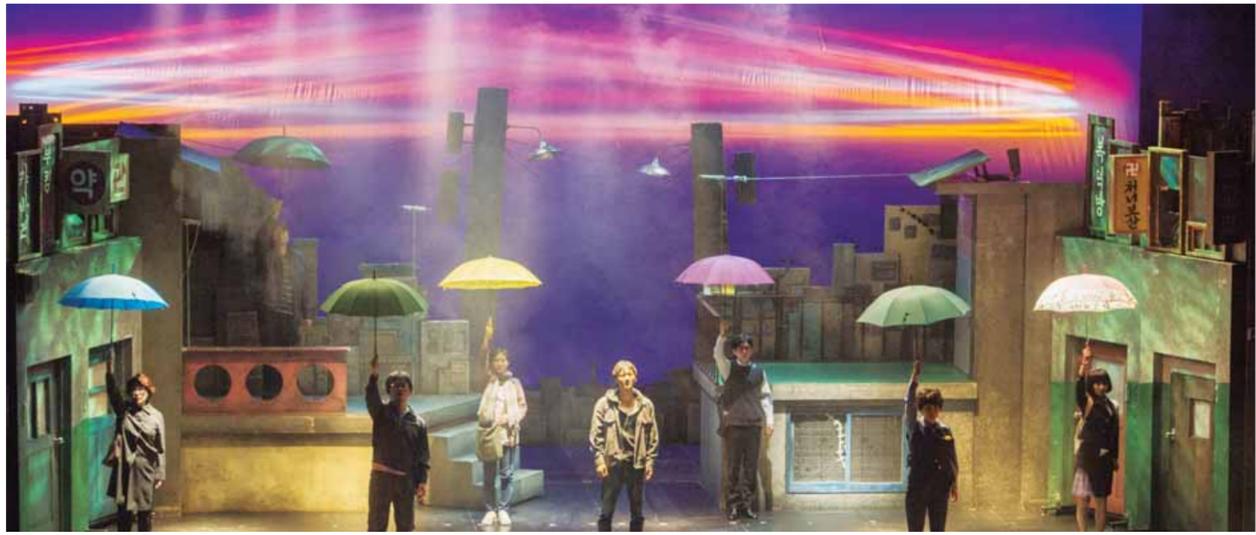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19/29 | 보성 구름많고비 17/27 | 목포 구름많음 19/28 | 순천 구름많고비 19/29 | 여수 구름많고비 19/29 | 영광 구름많음 17/29 | 나주 구름많음 16/30 | 진도 구름많고비 18/28 | 완도 구름많고비 19/27 | 전주 구름많음 17/30 | 구례 구름많음 17/27 | 군산 구름많음 18/29 | 강진 구름많고비 17/28 | 남원 구름많음 15/29 | 해남 구름많고비 16/28 | 흑산도 구름많음 19/29 | 장성 구름많음 16/29

◇바다 날씨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동~동 0.5~1.5 | 남해 앞바다 북~북동 1.0~2.0 북동~동 1.0~3.0 | 남부 앞바다 북동~동 1.5~3.0 북동~동 2.0~4.0 |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2.0~4.0 북동~동 3.0~5.0 |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2.0~4.0 북동~동 3.0~5.0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보통 |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포 밀물 03:52 썰물 09:03 | 16:19 21:24 | 여수 밀물 10:43 썰물 04:15 | 22:47 16:44

◇주간 날씨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21/27 18/26 17/25 15/24 14/23 13/22 11/21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뮤지컬 ‘빨래’ 공연이 1일과 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빨래’는 이주 노동자, 해고, 장애인 등 무거운 소재들을 유쾌하게 풀어내며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힘든 세상 웃고 살아요”

뮤지컬 ‘빨래’ 광주 공연...학생·가족단위 관람객 등 4천여명 성황

“잔잔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모두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작품이었어요. 배우들의 연기도 참 좋구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지난 1~2일 광주문화회관에서 막을 내린 뮤지컬 ‘빨래’ 공연은 관객들에 큰 감동

을 전했다. 4차례 진행된 이번 공연은 모두 4000여명이 관람했으며 가족 단위 관람객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했다. 특히 학생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정몽구재단의 후원을 받아 대성여중 전교생

과 교사 등 600여명이 단체 관람했고, 봉주초, 진남초, 화순 능주중, 하남중, 장성여중, 풍암고 등도 문화생활을 만끽했다.

지난 2005년 초연 후 3000회 넘게 공연된 ‘빨래’는 비정규직 사원 나영, 몽골 이주 노동자 솔롱고를 중심으로 다양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웃음과 눈물, 감동

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이날 관객들은 아름다운 노래와 탄탄한 스토리가 어우러진 작품에 몰입했다. 특히 주인공 할머니가 마흔 넘은 장애인 딸의 기저귀를 빨며 “살아있는 중간계 암시랑도 알라”고 노래할 때 객석에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무엇보다 8명의 배우가 1인 다역을 맡아 자유자재로 변신하며 다양한 연기를 선보여 재미를 살렸다. 배우들의 능청맞은 연기에 객석엔 연신 웃음 폭탄이 터졌다. /김미은기자 mekim@

‘활동 종료’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 계속”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 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지난 30일 종료됐다. 특조위는 정부의 압력 때문에 활동을 종료하지만 별도의 기구 등을 꾸려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당초 7월로 약속했던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도 점차 늦어지면서 연내 인양 자체가 힘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일 특조위에 따르면 4일 오전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간의 조사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원위 회의에는 진상규명위, 안전사회위, 지원위 등 3개 위원회 상임·비상임 위원 14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회의에서

는 ‘국민 참여 특별조사위 설립’과 ‘특별법 제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욱 4.16세월호참사 가족대책협의회 인양분과장은 “가족들은 애가 타고 있는데 해수부를 찾아가도 인양 과정을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특조위마저 활동이 종료되면서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과 인양 상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선체에 대한 연내 인양도 정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6일 “10월까지 인양을 마칠 것이다. 늦어도 연내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당초 약속했던 지난 7월보다 3개월 이상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인기자 kki@

서울대병원 “백남기 사망진단서 문제 없다”

전국 의대생들 반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잠된 의료인이려면 응당 이에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적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성명에는 연세대·이화여대·가톨릭대 등 전국 15개 대학 학생 809명이 연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진단서는 일반적인 작성형태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가 잘못 기재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일 ‘백남기 투쟁본부’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생들과 의대 동문에 이어 전국 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이날 성명을 내 “외인사임이 명백한 고 백남기씨의 죽음에 대한 잘못된 진단서로 의사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을

TAEYOUNG 21 HOSPITAL

태영21 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운암동
광천사거리 | 광주천변로

유스퀘어 터미널 | 신세계백화점 | 태영21병원 |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임로 392(월곡2동 679-3)